

전 아사히신문 기자의 '일본 뚫어보기'

일본서 찍은 한국영화, 판타지·허전함 달래는 장면 많아

나리카와 아이야
전 아사히신문 기자



코로나 속 '한·일 콜라보 영화' 특집
오사카 등서 5개 작품 릴레이 상영

'대관람차' 공동연출 백재호·이희섭
"한·일 비슷한데 묘하게 다른 구석
여행지 같은 느낌이라 꿈처럼 느껴"

최근 일본을 무대로 한 한국 감독이 찍은 영화 5 작품을 연속으로 볼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사카·후쿠오카·나고야·요코하마의 극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일콜라보영화특집'의 5작품이다. 나는 이미 영화제나 극장에서 적어도 한 번은 봤던 영화들이었지만 연속으로 보니까 보이는 공통점도 발견하고 흥미로웠다.

1월 9, 10일에는 5작품의 감독, 프로듀서, 배우가 참가하는 온라인 교류회도 열렸는데 내가 진행을 맡았다. 교류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고 시청자들은 채팅창에 질문이나 소감을 올렸다. 나는 그 내용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진행했다. 이를 동안 2시간씩 진행했는데 내가 준비한 질문을 하기 전에 시청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데 시간이 금방 가버렸다. 그만큼 질문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의 영화인이나 관객이 직접 만날 기회가 없어진 상황에서 더욱 소중할 시간으로 느껴졌다.

영화 보고 '꼬끼리 없는 동물원' 둘러
5작품 중 '대관람차' (2018)는 백재호 감독과 이희섭 감독이 공동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오사카가 무대였다. 오사카는 내가 가장 오래 사는 곳이다. 익숙한 풍경들이 많이 등장해서 반가웠다.

주인공 우주(강두)가 음악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를 만든 하루나(호리 하루나)의 근무지로 덴노지동물원도 나왔다. 덴노지동물원은 집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데 생각해볼까 어려웠을 때 간 다음 30년이상 가 본 적이 없다. '대관람차'에 자극을 받아 오랜만에 가봤다.

코로나 영향으로 동물원은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하기도 했다. 관람은 예약제로 돼 있었다. 입장하는 인원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직원 설명을 들으며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들어갔다. 원래 일본에서 연말연시는 한국의 설날처럼 시댁이나 처가댁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코로나 감염자가 많은 도쿄나 오사카에서 지방으로 가는 것을 피하는 사람이 많았다. 오사카에서 갈 데가 없어서 동물원이나 가자고 나온 사람이 많은 듯했다. 나도 마찬가지다. 시댁이 있는 도쿠시마도 아버지가 있는 고지도 못 가고 오사카에서 지냈다.

'대관람차'에서는 우주가 덴노지동물원에 있는 코끼리상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남자에 한국어로 말을 걸었다. "동물원 코끼리는 죽을 때 되면 어디로 가요?" 당황한 우주는 "와카리나(잘 몰라)"라고 일본어로 답하는데 이 장면은 우주의 상상인지 뭔지 애매한 판타지적인 장면이었다. 그 장면이 뒤엎어 생각하면서 덴노지동물원을 돌아다니는데 '동물원에는 코끼리가 없습니다'라는 표지를 발견했다. 2018년에 '라니히로코(ラニ博子)'가 죽었다는 것이다. 영화를 찍은 시기를 생각하면 라니히로코가 죽은 건 촬영 후일 텐데 영화와 현실이 교차한 꿈 속에 있는 기분이 들었다.

코끼리는 일본에선 평화의 상징 같은 이미지가 있다. 전쟁 중에 많은 코끼리가 굶어 죽었기 때문이다. 덴노지동물원의 경우, 태평양 전쟁 중인 1942년 사료가 부족해서 코끼리가 잇따라 죽었다. 1945년에는 동물원에 소이탄 2000발이 투하됐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 폭탄만 알려져 있지만,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도 공습을 당했다. 오사카에서는 1945년 3-8월 공습으로 1만 명 이상의 일반 시민이 사망했다.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요코하마에서 열린 '한·일콜라보영화제'에 소개된 영화 '대관람차'의 포스터와 주요 장면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라니히로코가 덴노지동물원으로 온 건 1970년. 그해 개최된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기념해서 인도 정부가 보낸 것이다. 일본에서는 동물원 동물 뉴스가 자주 TV나 신문에 보도

된다. 라니히로코가 죽었을 때 나는 한국에 있어서 몰랐지만 이번에 찾아보니 많은 매체가 보도했고 현대에 꽃을 바치는 시민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원래 새해가 시작하면 설레는 기분이 들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우울한 분위기다. 전쟁 중도 아닌데 코끼리가 없는 동물원을 걸어다니면서 코로나와의 전쟁은 언제 끝나나 멍하게 생각했다.

'대관람차' 뿐만 아니라 한국 감독이 일본에서 찍은 영화들은 판타지의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온라인 교류회 때 감독한테 물어봤다. 백재호 감독은 "일본과 한국이 비슷하게 묘하게 다른 구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간이 판타지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고 하고, 이희섭 감독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행지 같은 느낌이라 꿈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동의했다. 그렇다면 나는 일상적인 공간인 오사카가 한국 감독 영화를 통해 갑자기 꿈처럼 느껴진 것일까. 어쨌든 잘 아는 곳을 영화를 통해 다르게 보는 경험은 재미있다.

한국 감독이 일본에서 찍은 영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주인공이 실연을 당하거나 뭔가 허전한 마음을 일본에서 달래는 것이다. '대관람차'에서는 주

인공 우주가 한국에서 오사카로 출장 왔다가 귀국하는 비행기를 놓친 김에 그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오사카에서 지내기로 한다. 그 이유는 실종한 회사 선배를 찾기 위해서였고, 오사카에 있는 사이이 옛날에 포기했던 음악을 다시 시작한다.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과 포기한 꿈. 마음의 구멍을 채워주는 건 한국이라는 일상을 떠나서 일본이라는 비일상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듯하다.

'대관람차'라는 타이틀, 영화 속에 나오는 오사카 덴포잔 대관람차를 보면서 천천히 도는 관람차 또한 위로의 상징이 아닐까 싶었다. 백재호 감독은 "시나리오를 쓰러 답사하러 오사카에 왔을 때 관람차가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오사카에서 서너 개 봤는데 '이 나라엔 왜 이렇게 관람차가 많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양국 교류 살아가는 새해 되길 소망
나는 지금까지 일본에 관람차가 많거나 특히 오사카에 많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러고 보니까 오사카의 중심 우메다(梅田)에 관람차가 있는 걸 외국사람이 보면 신기할 수도 있겠다. 일부러 놀이공원까지 가서 관람차를 타는 건 뭔가

아깝지만 도시의 또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 관람차는 나도 좋아한다.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관람차를 본 기억이 없다. 있긴 있었지만 일본에 비하면 확실히 적은 것 같다. 일본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성격이 급한 편인 한국사람한테는 천천히 도는 관람차는 답답한 것일까? 주변에 물어보니까 "안보상의 문제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유야 어쨌든 적어도 감독이 일본에서 위로받은 경험이 있어서 영화에 그런 요소가 들어가는 것 아닐까 싶다. 나 또한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장소는 일본이다. 모국어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유로운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 그것이 나한테는 오래 있으면 미지근하게 느껴지고 또 영정적인 한국에 가고 싶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식적인 온라인 교류회가 끝나고 관계자만 대화하는 시간에 서로 "한국에 가고 싶다" "일본에 가고 싶다"고 하며 위로했다. 호리 하루나 배우가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건 편리하고 좋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직접 보고 싶어지네요"라고 한 말에 공감했다. 올해는 부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신년의 소원은 아주 심플해졌다.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영화 '대관람차'의 배경이 된 오사카 덴노지동물원에 붙은 '코끼리가 없다'는 안내문. <사진 히라키리 필름·나리카와 아이야>

나리카와 아이야(成川彩) 2008~2017년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주로 문화부 기자로 활동했다.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한국영화에 빠져들었다. 한국에서 영화를 배우면서 프리랜서로 일본(아사히신문 GLOBE+ 등)의 여러 매체에 영화 관련 칼럼을 집필 중이다.